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 활동지



신은영 글 · 리페 그림 | 보랏빛소어린이 펴냄 | 5~6학년 권장
2024년 5월 30일 출간 | 144쪽 | 14,500원 | ISBN 979-11-93010-83-9 (74810)

“색깔..... 그게 대체 뭐죠?”
색깔이 사라진 마을에서 벌어지는 반짝이는 이야기.

**깜깜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
올바른 선택의 가치를 깨우치는 성장 동화!**

● 초등 교과 연계

- 5학년 1학기 국어 독서 단원.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
- 5학년 2학기 국어 1.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
- 6학년 도덕 3. 나를 돌아보는 생활
- 6학년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.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

책을 읽기 전, <색깔을 훔치는 아이>의 표지를 살펴 보고 아래 물음에 자유롭게 답해 보세요.

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

Blank dashed box for answer.

주인공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?

Blank dashed box for answer.

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 같나요?

Blank dashed box for answer.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주인공 리안이 살고 있는 뷰로 마을은 아무런 색깔도 없는 흑백의 세상이에요. 나는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나요?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색깔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보거나 그림을 그려 보아요.

내가 가장
좋아하는 색깔은...

그 색깔을
좋아하는 이유는...

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

세상에는 '색깔'처럼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. 만약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
자유롭게 상상해서 적어 보아요.

만약 이 세상에서
색깔 이 사라진다면?

만약 이 세상에서
산소 가 사라진다면?

만약 이 세상에서
이 사라진다면?

만약 이 세상에서
가 사라진다면?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

리안은 신사를 만난 뒤, 비눗방울 채가 든 가방을 들고 슈퍼 마을로 떠났어요. 리안은 무엇을 하러 떠났나요? 그 선택을 했을 때 리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

리안은 무엇을 했나요?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dashed border, intended for the student's answer to the first question.

리안은 왜 그랬을까요?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dashed border, intended for the student's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.

리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dashed border, intended for the student's answer to the third question.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리안이 살던 뷰로 마을과 새라가 살고 있는 슈파 마을은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. 경치, 생활, 사람들의 표정 등을 책을 통해 살펴보고 아래의 빈칸에 적어 보세요.

뷰로 마을



슈파 마을

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

‘처음엔 그저 엄마가 건강해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어.
그다음엔 가난을 벗어나길 바랐고.
또 그다음엔 부자가 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 믿었어.
그런데……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할까.’

부자가 되고 싶었던 리안은 색깔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. 꿈에 그리던 바르품을 사서 엄마의 병도 고치게 되었지요. 그런데도 리안은 행복하지 않았어요.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리안의 입장이 되어 잘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써 보아요.

A large, empty, rounded rectangular area defined by a blue dotted line,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response.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책 속 등장인물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.



리안

“바안 할아버지가 색깔은 □□한
거렸어요! 모든 것들의 고유한 빛이라
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.”



바안 할아버지

“리안!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. 넌
잘못된 길로 들어서더라도 □□□
그 길에서 벗어날 힘이 있는 아이란 걸.”



새라

“다들 네가 색깔을 훔친 □□일
거라 말했지만, 난 끝까지 아니라고
했지. 넌 그럴 애가 아니니까.”



신사

“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!
□□가 되는 것만 중요하지.”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

부자가 된 리안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진 새라를 다시 만나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.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.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? 아래의 빈칸에 자유롭게 나의 이야기를 써 보세요.

나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어. 어떤 일이었냐면...

내 선택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...

그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...

<색깔을 훔치는 아이> 독서활동지

책을 다 읽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? 책 속 등장인물을 골라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아요. 주인공 리안과 새라에게 써도 좋고,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했던 신사 마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겨 보아요.

A large rectangular area enclosed by a blue dashed border,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letters.

